



제 402 호 2015년 8월 19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광복 70주년

“광복70주년, 통일을 함께 상상하다”
‘안산8.15기념문화제’

04면 생태·관광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354종의 생물을 발견하다

06면 문화·예술

내가 만드는 동화 이야기 체험전,
Hi~STORY

10면 학교

금융·관광분야 특성화고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광복70주년, 통일을 함께 상상하라”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안산8.15기념문화제’ 열려



다.”고 말했다. 안산은 국내 고려인 3만 명 가운데 약 5천 명이 함께 모여 거주하는 지역이다.

3부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안산시민 200인 퍼포먼스 ‘춤추는 평화’는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통일을 상상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8세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안산시민이 참여해 ‘문을 여시오’, ‘가보고싶어’ 등의 노래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면서 관객들까지 절로 신명나게 하는 무대가 만들어졌다. 마지막 아리랑 노래가 나오자 한반도기를 이용한 역동적인 군무가 이어졌고, 춤을 추던 시민들이 무대에서 한반도 지

도를 완성하자 객석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퍼포먼스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주은희 씨는 “그동안 통일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많은 시민들과 함께 춤을 추며 통일을 베푸는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며, “특히 아이들이 앞에서 안산 시민선언도 하게 되어 가문의 영광으로 오래 기억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부일 씨는 “토크프로그램이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의미 있었다.”며, “특히 박은희 씨 이야기가 많이 공감됐고, 안산시민으로 지금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4일 안산문화광장에서는 안산8.15기념문화제가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안산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산이란 지역적 특성 속에서 광복과 통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안산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제는 다양한 예술 공연, 토크콘서트, 시민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1부 개회식은 안산불교연합회 승현스님, 안산지역사연구회 정진각 소장,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 6.15안산본부 임득선 대표, 안산통일포럼 윤기종 대표로 구성된 8.15안산추진위 상임대표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오늘 식민의 아픔을 사라지게 만들 진정한

해방과 평화와 번영의 통일 코리아를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상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시민들이 준비한 안산8.15기념문화제 개최를 힘찬 구호로 선포합니다.” 이어 상임공동대표 5명과 시민들이 함께 “새로운 70년, 통일을 향해!”, “만나야 통일이다” 구호를 함께 외치며 행사의 의의를 함께 나눴다.

2부 토크콘서트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의 굴곡진 역사로 인해 삶에 큰 영향을 받은 시민패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대부도 선감학원의 생존자 김충근 씨, 단원고 2학년 예은엄마 박은희 씨, 고려인 3세 임이고르 씨, 제일교포 3세 강예숙 씨가 출연했다. 선감학원은 일제

강점기 청소년 감화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져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사용됐던 장소로 해방 이후까지 청소년들의 인권유린이 일어났던 현장이다.

1960년대 선감학원에 있었다는 김충근 씨는 “집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순사한테 끌려가 8살에 선감학원에 수용되어 그 후 22년간 노예처럼 살았다.”며, “그 당시 선감도에서 탈출하려고 바다를 건너다 익사했던 학생들이 많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날 함께한 고려인 임이고르 씨는 “우리도 똑같은 민족으로 잘 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북한이 모두 같은 민족인데 왜 이때까지 통일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광복70년! 분단70년! 그리고 통일의 원년으로 가자

통일포럼 대표 윤기종 씨를 만나다.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
외세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모색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8.15기념 문화제가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며 광복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행사를 주관하는 공동대표 중 한 분인 통일포럼 대표 윤기종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광복70주년을 맞아 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 과연 광복70주년을 기뻐만 할 것인가. 오히려 70년이 지나도록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못난 조상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몸으로 느끼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다.

광복절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광복절은 자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분단 역시 우리의 뜻이 아닌 외세의 힘 앞에 이루어진 현실이다. 이제 분단된 채 이어지고 있는 비극의 고통을 접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 시점에서 통일은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 논쟁, 일본의 반성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 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본다.

광복과 함께 분단으로 이어진 민족의 비극적 과제를 무엇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편향된 지원과 지지만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다. 국민, 정부, 시민단체 모두가 열린 마음과 협력을 해나감으로써 외세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모색하여야 한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하게 될 일들이 어떤?

- 통일포럼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 대북 경협사업을 구상중이고 또 해야할 숙제라고 본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가고 있다. 정부나 우리 안산시도 대북경협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먼저 신뢰를 형성하여 협력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해나감으로써 한걸음씩 가까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지원사업,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교육사업, 새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윤기종 통일포럼 대표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아동·여성 안전망 셉테드(CPTED) 마을사업 실시 범죄취약지역에 특수형광페인트 도포

안산시가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셉테드(CPTED)를 적용한 범죄예방에 나섰다.

셉테드란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생활 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이에 시에서는 주택 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자 지난 8월 12일 사동 주택밀집지역 주택 약 80호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상록경찰서, 사동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해 주민이 직접 창틀, 파이프, 담장 등에 특수형광 페인트 물질을 칠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특수형광 페인트 물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자외선 특수 렌턴을 통해서만 보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되어 범

인 검거에 효과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작업으로 범인의 족적 추적이 가능해 검거율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구역 내 안 내판 설치를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셉테드 마을사업은 인적이 드문 골목의 범죄율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이 치안에 직접 기여하기 위하여 특수형광물질을 도포

하고 그 지역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범죄의 접근 통제를 통한 예방 효과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동 주민센터, 상록·단원경찰서, 지역 주민들이 협업으로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치안에 직접 참여해서 인적이 드문 골목의 범죄율을 낮추고자 노력해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지원과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가족여성과 (☎ 031-481-2209)

‘생명을 앗아가는 폭염’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냉방용품’ 지원



안산시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기온 상승 및 폭염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폭염대비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했다. 단원보건소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력을 갖춘 폭염대응 방문 건강관리 지원반 T/F팀을 구성 운영한다.

폭염대응 방문 건강관리 지원반 T/F팀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대상자에 가정방문, 전화, SMS문자 발송 등 수시 건강 체크를 하고, 안전확인 체계 구

축 등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연일 이어지는 불볕 더위에 냉방용품도 없이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방문보건대상자 6가구를 대한적십자사 안산재난대응봉사회와 연계,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했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시 오후 12시~18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

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느슨하고 가벼운 옷 입기 등 폭염대비 9대 건강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운동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수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능

- 염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용

-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

-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바름

▷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합니다.

-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 이용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 적응시간 확보

-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

▷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건강상태 확인

▷ 지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섭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예외)

• 문의 : 단원보건소 방문보건담당 (☎ 031-481-3512)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354종의 생물을 발견하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생물종 목록을 만든 생물탐사대회 열려

지난 8월 8일과 9일,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열리는 바이오블리츠 생물탐사대회가 열려 총 354종의 생물을 발견했다. 바이오블리츠는 24시간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가해 현재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참여 활동이다. 안산시 환경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행사는 저서생물(底棲生物),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각 분야 전문가와 참여자들이 갈대습지공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생물종 조사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먼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은 곤충탐사 분야는 곤충생태연구소 한영식 소장의 진행으로 신비한 재미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한 소장은 어린 왕사마귀를 아이들 머리 위에 올려놓고 직접 촉감을 확인해 보게 하거나, 아이들 손가락 끝에 앉아있는 나비를 보여주며 나비날개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어린 왕사마귀가 목뒤에서 자꾸 흘러내려오자 이상한 느낌에 실실 웃는 아이들, 손가락 끝

에 앉은 나비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넘기는 아이들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곤충탐사에서는 거미류를 포함한 총 138종의 생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영식 소장은 “이번에 자연서식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물장군(멸종위기 2급), 습지가 안정화 된 곳에서 많이 사는 고추잠자리와 열석점긴 다리무당벌레도 볼 수 있었다.”며 “갈대습지공원이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서생물 분야 탐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분주 박사의 인도로 갈대습지공원 물가에서 진행됐다. 탐사에 앞서 구 박사는 “갈대습지공원은 바다와 조금 거리가 있어 물의 염분 자체가 높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저서생물이 제한돼 있다.”며, “실제 이곳에서 발견된 저서생물은 사각게, 펄공게, 두족박이 참갯지렁이, 참게 딱 4종류”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참게의 암수를 구분하는 법, 게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모습 등을 관찰했다. 구 박사는 갯벌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다



양한 계들의 서식굴 특징을 모형으로 흥미롭게 설명하며, 시화호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중 가장 길고 깊은 서식굴을 가진 가재붙이굴의 신비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화호로 흘러가는 폐수의 수질 정화를 위해 원래 갯벌이었던 곳에 갈대를 식재해 인공적으로 만든 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의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더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Water 김호준 박사는 “2002년에 갈대습지공원에서 45종의 식물을 발견했는데, 올해는 180종의 식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안산갈대습지공원은 한 장소에서 부들 4종류를 모두 볼 수 있는 흔치 않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양서파충류 분야를 탐사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박사과정 정지화 연구원은 “사전답사를 포함한 3번의 탐사활동을 통해 갈대습지공원에서 양서류 7종과 파충류 8종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히 “천연기념물 남생이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금개구리를 볼 수 있는 갈대습지공원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남매와 함께 바이오블리츠에 참가한 강신교 씨(일동)는 “저서생물 탐사에서 갯벌에 들어가지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박사님이 참게를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게들이 사는 집의 종류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아빠와 함께 흥미롭게 설명을 들던 강민주 학생(호동초5)은 “곤충을 채집하고 다양한 곤충을 알게 되어 좋았다.”며, “참매미 허물을 찾았는데,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셔서 뿌듯했다.”고 전했다. 평소 생물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진옥경 씨(선부동)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분들이 생물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 저서생물(底棲生物)
해저에 서식하는 생물을 통칭하는 말.



조금 다를 뿐, 우리도 전문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울타리 밖에서 우뚝 서다



안산시는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기회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판로개척을 위해 시설별 생산품 홍보 등을 돕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구분된다.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며,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은 아니나, 안산시 조례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며 근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안산시에는 △근로사업장 '해동일터'(해안로 865), △보호작업장으로는 '빛과동지'(시낭공원안길 19), '푸른동산'(항호2길 58), '안

산밀알보호작업장'(원포공원1로 다인타운 123호), '행복한학교'(광덕동로39 402호)에서 173명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재활작업장(정왕천 동로 132번길 48)에는 41명이 종사하고 있다.

명취원이 운영하는 '해동일터'는 각종 유니폼과 작업복을 제작 판매해 10억여 원의 매출(2014년)을 올렸으며, 안산제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빛과동지'는 친환경주방세제, 천연비누를 제작해 9천6백여만 원(2014년)을, 2015년 신규 시설인 '행복한학교'는 베이커리, 원두 로스팅으로 4천8백여만 원(2015 상반기)의 매출 실적을 냈다. 밀알복지재단은 '안산밀알보호작업장'에서 재생카트리지, 프린터 임대, 임가공 등을 통해 7천4백여만 원(2014년)의 매출을 기록했다.

천연비누, 베이커리, 임가공 등을 생산하며 동종의 타 시설과 규모·근로 인원이 비슷한 여건에서 3억3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푸른동산'을 찾았다.

동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푸른동산'은 천연비누 제조와 임가공을 하는 작업장 이외에 'שלמחן 물가(동산고 내)', '큰숲 베이커리'(상록구 석호로 196 상록프라자 1층)에서 제과 제빵, 원두로스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006년 11월에 동산교회의 지원을

받아 개인시설로 시작한 푸른동산은 2009년 8월 법인시설로 등록을 했다. 초창기에는 20명으로 출발해 현재 49명의 장애인들이 제과 제빵, 바리스타, 포장, 카운터 등으로 근로영역을 확장해 나아갔다. 교사와 제빵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사무·회계 등 11명이 이들의 직업재활을 돕는다.

2014년 3월에 문을 연 '큰숲 베이커리'는 복지시설에다 서비스업이라는 사기업 개념을 더해 장애인들이 매장에서 직접 일반인들과 상대하면서 직업의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생생한 현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일반인과 경쟁하며 소득을 올리는 구조의 베이커리 카페는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좋은 재료와 30년 경력을 가진 제빵사의 지도 아래 질 좋고 특색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 전주의 한 제과점에서 만들어 널리 알려진 전주초코파이를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든 초코파이, 거품의 풍미로 카페인의 쓴 맛을 상쇄시킨 아메리카노 등 연구를 거듭해 만든 큰숲만의 특화 상품으로 당당하게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김호열 시설장은 "장애인이 만들어 파는 빵이라고 해서 동정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소비자 앞에 설 때 큰숲은 이들에게 커다란 숲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사회복지과 (☎ 031-481-2879)
큰숲 베이커리 (☎ 031-415-8702)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정부와 함께하는 '미소금융'

서민금융의 디딤돌 되다

미소금융재단은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운 미, 적을 少)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는 뜻으로 2009년 12월부터 미소금융 사업을 해왔다. 미소금융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Microcredit)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사용해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해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대 은행(KB, 우리, 신한, 하나, IBK)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 직접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한다.

대출금 지원대상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창업하려는 지원자 또한 제외된다. 대출 종류는 프랜차이즈창업자금 대출, 창업 임차기금(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 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 무등록사업자 대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대출이 있다. 대출한도

는 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금리는 연 2.0~4.5%이고, 6개월에서 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임대주택보증금 대출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공사와 협약에 의거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환보증금으로 2,000만 원 납부 시 월 임대료 58,333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7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안산시 소재 미소금융재단은 IBK미소금융재단(단원구 원고잔로 17 기업은행 3층)과 LG미소금융재단(상록구 본오로 169 월드아파트상가 4동 205호) 두 곳이 운영 중에 있다.

IBK미소금융재단 본부이자 안산지부를 맡고 있는 김노수 지부장은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상품을 알리기 위해 주말에도 신길·팔곡·고잔동 지역을 찾아다니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임차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미소금융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사금융인 줄 알고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상록수 시민사랑방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미소금융 상담이 가능하다.

•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IBK미소금융재단 안산지부 (☎ 031-485-4690)
LG미소금융재단 안산사무소 (☎ 031-546-347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채소



○ 옥수수의 효능

- **피부 노화 예방** : 옥수수 씨눈에는 비타민E가 많아 피부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 옥수수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리놀레산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당뇨병 치료 및 무기 제거 효과** : 옥수수 수염에 많이 함유된 칼륨이 이노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어 무기제거와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 맛있는 옥수수 고르는 방법

- 옥수수 수염이 흑갈색으로 변한 것이 잘 영근 옥수수입니다.
- 옥수수 속 알맹이가 고르고 빈 곳 없이 꽉 찬 옥수수가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 맛있는 옥수수 오랫동안 보관하는 법

- 옥수수는 시간이 지나면 당분이 전분으로 변해 맛이 떨어집니다. 바로 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다면 냉동보관 후 먹을 만큼 꺼내서 찌 드시는 게 좋습니다.
- 냉동보관 하실 때는 속껍질 한 겹(수염은 제거) 남겨서 옥수수를 감싸 보관해주세요. 수분이 덜 빠져서 맛있게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 옥수수 맛있게 삶는 방법

1. 속껍질을 한 겹 남겨둔 옥수수와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2. 옥수수를 냄비에 넣고 옥수수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3. 물을 부은 후 옥수수 수염을 같이 넣고 강불에서 20분정도 삶아줍니다. (기호에 따라 설탕과 소금을 넣어도 됩니다.)
 4. 20분 후에 약불로 줄인 후 30분 더 삶아주면 완성입니다. (시간은 양에 따라 조절하세요.)
- ※ 옥수수 수염을 같이 넣고 삶아주면 더 달달한 옥수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동화속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내가 만드는 동화 이야기 체험전, Hi~STORY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오는 8월 29일까지 열려

“평소 읽어주지만 하던 동화 속 놀이터 내용이 참 좋아요. 입에 넣어줘야 먹었던 고구마, 땅콩, 키위, 빵, 파이. 그런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견과류가 올려진 파이를 꼭꼭 씹어 먹고 아빠도 한입 주는데 몽클했어.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문구가 와닿아요. 가족이 함께한 체험시간 정말 좋았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내가 만드는 동화 이야기 체험전, Hi~STORY를 먼저 체험한 후기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에서 오는 8월 29일까지 Hi~STORY 체험전이 열린다.

Hi~STORY 3개의 방에서 체험을 한다. 각 방은 알록달록한 커튼 문을 달아 호기심

을 불러일으킨다. 복도를 따라 들어간 첫 번째 방은 ‘헨젤과 그레텔’ 방이다. 마녀의 부엌이 꾸며져 있다. 각종 조리기구 소품과 마녀 그리고 동화 속 주인공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 어린이들은 길을 잃고 배가 고파 마녀의 과자집에 들어간 주인공이 되어본다. 그리고 직접 파이를 구우며 촉각을 이용한 체험을 한다. 강산어린이집(시흥)에서 온 7살 김연우 어린이는 “집에 헨젤과 그레텔 책이 있어요. 마녀 집에서 파이를 만드니 재미있어요.”라며 파이 만드는 즐거움에 빠졌다. 파이 틀에 도우를 꼭꼭 눌러 만든 후 잘게 다져진 견과류 토핑을 얹었다. 11시 20분 체험에 참가한 강산어린이집 70여 명의 어린이들이 고사

리 같은 손으로 바베 손을 놀리며 파이를 만들었다.

두 번째 방은 ‘아기돼지 삼형제’ 방이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엄마와 살고 있어요. 돼지 삼형제는 엄청 게으른 친구들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게으름만 피우고 방도 치우지 않으니 니네들이 따로 집을 짓고 살아라고 말했어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후~하고 불었어요. 어떡하게 하죠? 벽돌집만 남고 집이 다 날아갔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지붕 집을 짓자는 진행자의 말에 어느새 어린이들은 벽돌, 나무, 볏짚 재료 앞에 몰려들었다. 서로 힘을 모아 집을 열심히 지었다. 그리고 콩이 바닥에 깔린 콩놀이방에 들어가 발로, 손으로 콩의 감각을 느껴보았다.

세 번째 방은 ‘걸리버 여행기’ 방이다. 투석기와 새총으로 위협에 처한 걸리버를 도와 이웃나라의 배들을 힘을 합쳐 막아보고 걸리버가 타고 온 배 위로 영차 영차 올라가 신나는 미끄럼틀을 타고 배에서 뛰어논다.

동화 속 이야기로 만들어진 Hi~STORY 안에서 청각, 후각, 시각, 촉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 받은 아이들. 친숙함 속의 장면을 직접 크게도 보고, 향도 맡아보고, 다양한 재료를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교육 스토리를 듣는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키게 된다.

상록구 본오동에서 온 서민어 씨는 “소셜에서 체험활동을 찾다가 예술의전당 체험전이 있어 오게 됐다. 6살 딸만 데리고 왔는데 둘째도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딸이 걸리버 배라며 배에서 노는 것을 즐거워하네요.”라고 말했다.

책으로만 접하던 이야기가 아니다. 눈으로만 보고 듣던 이야기가 아니다. 책속의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특별한 교육.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기발한 창의력을 개발해 준다.

•문의 : Hi~STORY 담당자 (☎ 010-5800-0957)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체험권	입장 시간	참고 사항
어린이 : 16,000 어른 : 10,000 단체 : 11,000 (20인 이상)	오전 10시, 10시 40분, 11시 20분 12시, 12시 40분(오전타임) 오후 2시, 2시 40분, 3시 20분, 4시, 4시 40분	1. 평일 오전 단체 진행 (단체 예약이 없을 시 개인 체험 가능) 2. 매주 일요일 휴관 3. 체험 시간 : 90분 4. 안산시민, 재단 회원 등 할인 혜택 확인

안산문화재단 9월 기획공연



ASAC '아삭'은 AnSan Arts Center 이니셜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브랜드입니다



〈무용〉 예술을 위한 조화

- 공연일정 : 9월 5일(토) 6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출연 :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공연내용 : 2015년 가장 주목받는 무용단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현대무용과 클래식의 조화를 통해 무용 공연의 새로운 변신을 목격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연극〉 만주전선

- 공연일정 : 9월 10일(목) 8시
9월 11일(금) 8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작/연출 : 박근형 • 출연 : 강지은, 정세라, 권혁, 이봉련, 김은우, 김동원
-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전석 25,000원
- 공연내용 : 1940년 만주벌판으로 떠난 조선의 젊은 청년들과 그들의 역사적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본다. 박근형 연출 특유의 입심과 상상력으로 역사의 뒤편을 정조준한 연극.



〈월극〉 바다에서 온 여인

- 공연일정 : 9월 18일(금) 7시 30분
9월 19일(토) 4시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출연 : 중국 항주월극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전석 20,000원
- 공연내용 : 2006년에 기획되었던 입센의 헤다 가블러를 개작한 극이다. 중국 고유의 문화와 서양 예술의 미를 동시에 갖춘 극으로, 한 중일 연극 축제인 '베세토 연극제'를 통해 아시아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어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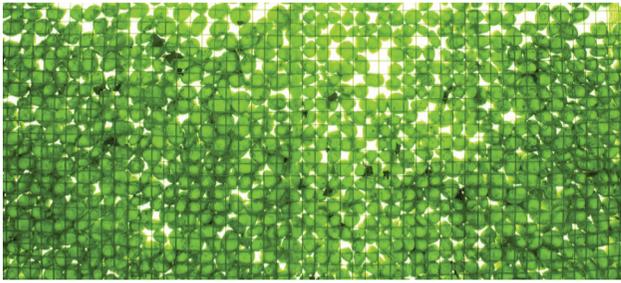


〈오페라 갈라콘서트〉 사랑의 묘약

- 공연일정 : 9월 18일(금) 7시 30분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출연 : 양진모, 이지주, 조선형, 김진추, 이재욱, 함석헌, 김윤지,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공연내용 : 도니체티의 명작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생생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해설과 함께 감상하며, 오페라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대사진 - 8인8색’展

각자의 메시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까?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리즘 (김용권)



메트로폴리탄미술관_가슴에 품다 (고희환)



폐교 (최은아)



내 어머니 (한재수)

8월 23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전시실

‘현대사진전 - 8인8색’展이 오는 8월 23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20세기에는 사진의 미적가치가 회화의 모방을 기준하여 결정되고 미학적 순수의 표현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제 현대사진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하여 이미지 구성의 다양함과 주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8인8색전은 새로움의 다양성에서 보여지는 사진이 아닌, 보여주는 사진을 하고자 했다. 또한 각자의 메시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지,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러한 공통의 고민을 세상과 잠시 공유하기로 방향을 결정했다.

김용권 작가는 리즘(rhizme)이란 생물학에서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를 지

칭하는 말로 위계나 이원론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평면적 관계를 지향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중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평등하면서 융합적인, 개별적이면서 집합으로 보이는 작업을 했다.

고희환 작가의 사진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을 몇 년 간 매번 짧은 시간 방문하여 촬영해온 사진이다. 촬영 소재가 많이 있으나 제약이 많다. 스트로보와 삼각대 사용이 금지돼 모두 구조물을 이용, 손으로 들고 촬영한 사진이다. 현재의 존재와 시간의 흐름을 평면화했다.

최은아 작가는 인간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죽음은 결국 시간이라는 개념을 담보해야

만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존재해명을 위해 시간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어찌 해 볼 수가 없다. 현존하는 시간에서 과거를 유추하는 사진작업을 했다.

김정환 작가는 기다림과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림을 그렸다. 떠나간 사람과 떠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편지들. 아바이 마을의 기다림과 삼촌리 재개발의 미명아래 사람들이 떠나버린 빈자리엔 우편함에 가득차다 못해 넘쳐 흘러내린 소식들과 전경(全景)들이 떠난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우 작가는 흰 여백에서 연결되는 단 순함에서 우린 종종 더 많은 상상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눈속에서 두루미를 보면서 흰색과 잠깐씩 보이는 검정깃털과 부리의 형상이 묵화를 보는 듯했다. 자유롭게 여유롭게 천천히 화선지 위에 복잡한 마음의 고뇌를 하나씩 지우면서 마지막 남아있을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성관모 작가는 ‘혁신도시’라는 또 다른 형

태의 도시섹터 등장에 흥미와 관심이 집중된다. 아주 단순하게 ‘무엇을 보았는가?’로부터 출발한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 표출’이 그곳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부라고 말한다.

한재수 작가는 듣기만하여도 마음이 먹먹한 어머니를 그렸다. 이제는 기억속에서 살아있는 어머니를 지금의 현실에서 만나려 한다. 아주 특별한 우리 어머니는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의 특별한 어머니다.

이순옥 작가는 시간이 며칠 지나며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난 고서화의 화풍이 된 풍경을 담았다. 아무도 없는 썰물 바닷가 파도가 밀려 내려가며 흔적을 만든다. 그사이 작은 게 한 마리가 풍류를 즐기며 산과 계곡을 지나간다. 순간마다 뒤바뀌는 과거의 회상을 지금 순간의 시간으로 간직하고 싶다.

작가들이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8인 8색 사진전에서 만나보자.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그 거리에 가면 거리예술을 만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음악, 무용, 마술 등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매주 수요일 안산시 관내 거리와 광장은 왁자지껄하다. 안산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 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추진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매년 초에 음악, 무용, 마임, 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 공연가들을 공모방식으로 선발하여 거리, 광장, 공원 등에서 공연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 가까이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되며, 아마추어 공연가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안산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산시는 지난 6월 3일 상록수역 앞 광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하여 올해 총 25회 공연, 50팀을 무대에 세울 계획이며, 그동안 안산 문화광장, 원고잔공원, 중앙역 앞, 고잔신도시 상가 거리 등에서 7회 공연을 했다.

특히,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은 공연장소

선정시 세월호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낸 고잔1동, 와동, 선부동 지역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가밀집지역을 우선 안배하여 추진하고 있어 시민과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8월 19일에는 중앙역 건너편 종합의

류상가 앞 광장에서 유니밴드와 뮤직스페이스컴퍼니 공연팀이 출연하여 8회차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8월 25일은 안산문화광장, 8월 29일은 와동체육공원 물놀이장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068

일자			공연팀		공연장소	공연내용
일자	요일	시간	공연분야	공연팀명		
8월 25일	화	18:30	무용	권정미실용무용단	안산문화광장	벨리댄스
8월 25일	화	19:00	음악	전자베짱이	안산문화광장	대중음악, 팝음악
8월 29일	토	15:00	음악	디즈이즈잇	와동체육공원(물놀이장)	비보이, 비트박스
8월 29일	토	15:30	무용	밸런스방송댄스	와동체육공원(물놀이장)	댄스

※ 우선시 취소되거나 공연 변경될 수 있음



다양한 철새와 송어 떼를 볼 수 있는 '안산천' 이야기

자전거 라이딩, 산책 코스로도 인기 있어

중앙도서관 옆 안산천을 걷다보면 재미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물속에 박혀있는 통나무 끝에 까만 가마우지들이 한 마리씩 자리 잡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한쪽을 바라보고 있다. 무심결에 지나치다 보면 그냥 조각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새다. 가끔 이곳을 걷다 운이 좋을 때면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 통째로 삼키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안산천에서는 가마우지 뿐 아니라 백로, 왜가리, 흰뺨검둥오리 등 다양한 철새들을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새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뭘까.

그건 철새들이 텃새로 살아도 될 만큼 이곳에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안산천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송어떼가 철새들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송어들이 안산천 하구로 모여드는 이유는 시화호가 맞닿는 이곳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시화호가 생태계 안정성을 찾아가면서 송어들의 먹잇감인 식물성 플랑크톤과 빨 속의 유기물이 하천에 많아지면서 안산천에서는

팔뚝만한 송어떼가 수면 위로 펄쩍 뛰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 됐다.

안산천은 수암봉에서 발원해 양상동, 월피동, 성포동, 고잔동 등을 거쳐 시화호를 통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이다. 유역면적 54.75km², 유로연장 10.325km로 안산에서 가장 넓고 가장 긴 하천이다. 안산천을 경계로 단원구와 상록구가 나뉜다. 조선시대에는 서해 갯벌 물이 하천의 종류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개교천(介橋川)이라 불렀다. 고잔 신도시를 흘러온 안산천과 시화호가 만나는 곳이 옛 사리포구다. 사리포구는 근대 경기만 3포구의 하나로 시화호 물막이공사가 끝난 1996년까지 포구였던 곳으로 지금은 안산 호수공원이 되었다.

안산천은 장마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 하천의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갈수기(渇水期)로 하천 유량이 적다. 하천 연안은 범람으로 인해 퇴적된 충적층

이 분포하고 있으며, 고잔동 지역의 안산천 하류지역은 해저퇴적층으로 점토 및 실토로 구성되어있고 비교적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다. 안산천 유역의 수종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분포하지만 두 수종이 혼합된 혼합림이 대부분이다. 안산천 하천변에 출현되는 식생으로는 갯버들, 분버들과 같은 버드나무를 비롯해 여뀌, 고마리, 나도병이, 속속이풀, 닭의장풀, 달뿌리, 쑥 등이 있다. 또, 안산천 상류에서는 송어뿐 아니라 잉어와 붕어, 피라미메기 등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금슬 좋기로 유명한 길조 원앙(천연기념물 327호)도 발견되어 화제가 됐다.

2011년에 안산시가 160억 원을 들여 시작한 안산천 복원사업은 3년 4개월 걸쳐 지난해 끝났다. 월피동 안산2교부터 고잔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16교까지 안산천 5.3km 구간의 하천부지를 정비하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이때 만들어진 인공

폭포와 돌다리, 나무다리 등이 하천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하천 한쪽 편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따로 있어 라이딩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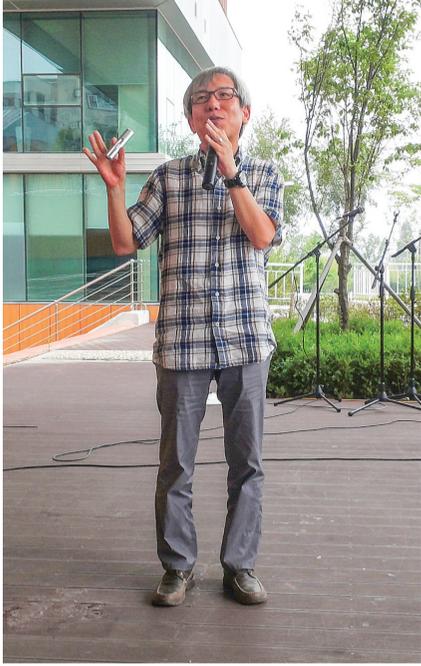
특히 안산시에서 사업비 7억4,000만 원을 투입해 안산천에서 수리산 수암봉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곳이 더 주목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동 시화호에서 화정천, 안산천을 거쳐 안산동 수암봉 주차장까지 12.3km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연결된다. 안산천 상류 월피동에서 수암봉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 350m와 안산천 제방길 1.2km, 안산동주민자치센터에서 수암봉 주차장까지 도시계획도로 1.7km에 미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태하천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수암봉 방향으로 3개 구간이 이어지지 않았었다."며, "이 구간이 연결되면 시화호에서 수암봉 주차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생태하천과 숲을 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 안산시사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의 '나무이야기'



상 살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는 물이 없는 삼.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나무가 없는 것인데요. 이 세 번째 조건은 결국 나무가 살고 있다면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무가 없는 곳에는 사람도 살 수 없다는 뜻이 되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시골이든 도시든,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해요. 이러한 규정만 보더라도 나무는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나무에 기대어 살다

“사람처럼 직립해서 자라는 생명체는 나무밖에 없어요. 사람의 사유(思惟)도 나무에서 나온 것이죠. 어느 날 두 발로 걸어가던 사람이 앞을 막아서는 생명체를 발견하고 그걸 올려다봤겠죠. 그 잠시 멈춘 사이에 사유라는 게 탄생했던 거예요. 자연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 사유의 실마리를 주는 건 나무밖에 없어요.”

그는 경북 상주군 마동면 용포리의 느티나무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한다.

논농사를 짓는 15가구, 평균 연령 75세 이상인 마을의 400년 된 느티나무 이야기. 2009년 봄, 조경업자가 나무를 옮겨가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모내기를 마친 농사를 작파하고 순번을 정해 나무를 지키기 시작했다. 나무 주변의 땅이 이미 조경업자에게 팔려나간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보호수로 지정하기 어려운 수령이라는 산림전문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점을 높이 평가해 2014년 4월,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됐다.

소록도 중앙공원의 나무들, 위로와 평안이 된다

소록도 중앙공원 가장자리에서 자란 솔송나무는 키가 8m를 조금 넘고, 줄기 둘레는 1.2m밖에 안 된다. 30m까지 자라는 솔송나무의 본성을 생각하면 아직 한참 더 자라야 할 나무다. 한센병 치료 전문 병원인 자혜의원이 설립된 1916년 즈음에 심었다는 걸 감안하면, 나이도 고작해야 100살 미만인 어린 나무다.

솔송나무는 나뭇가지가 수평으로 펼쳐지며 전체적으로 원뿔형으로 자란다. 그러나 소록도 솔송나무는 반원형의 우산을 덮어놓은 듯 단아하다. 나뭇가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느다란 바늘잎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듬

어낸 듯한 흔적이 엿보인다.

“후박나무, 솔송나무 등 중앙공원의 나무들은 세상의 모든 생명이 거부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반감 없이 자신들을 반겨주는 나무를 꺼안은 흔적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 나무를 보듬어 안으며 끝내 지워지지 않는 천형의 고통을 씹어 삼켰다고 해야겠지요. 중앙공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한센병 환자들의 썩어 문드러진 입술을 타고 저절로 흘러내린 침으로 키워낸 겁니다.”

나무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다. 느티나무 한 그루에 매달린 500만 장의 잎사귀가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바람에 날리며 아름다운 그늘을 만든다. 우리가 내쉬는 날숨이 나무에게 꼭 필요한 나무의 들숨이 되고, 나무의 온몸을 한 바퀴 돌아서 잎사귀를 통해 빠져나오는 나무의 날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들숨이 된다.

“나무에 대해 모른다고 살면서 불편한 건 아니죠. 생태학자 에리스 칼슨은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생태적인 관점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주변의 나무들이 우리를 지켜줬고 그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고 했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사진제공 : 나무칼럼니스트 고규홍

지난 7월 31일 평생학습관에서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가 ‘차유의 다른 이름, 나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는 서강대 국어국문학 과를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로 12년간 일했다. 그 뒤 17년째 전국의 나무를 찾아다니며 글을 쓰고 있고, 「나무가 말하었네」, 「고규홍의 한국의 나무 특강」, 「도시의 나무 산책기」 등의 책을 냈다. 현재 태안반도 천리포수목원 이사이며 홈페이지 솔숲닷컴(http://solsup.com)을 통해 그가 만난 나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는 “무인도에 없는 세 가지는 뭘까요?”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국제해양법에서 정한 ‘무인도를 규정하는 세 가지 규칙’의 첫 번째는 사람이 두 가구이



상주군 마동면 용포리 느티나무



소록도 솔송나무



“안산시의 도시숲은 안산시민에게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심리적 치유와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p>자연공존의 숲</p> <p>시민들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숲</p>	<p>녹색가로의 숲</p> <p>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자연과 도심을 연결하는 가로녹지 숲</p>	<p>해안휴양의 숲</p> <p>섬의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한 갯벌 및 해안선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해안생태 숲</p>	<p>치유의 숲</p> <p>시민의 스트레스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휴양의 숲</p>	<p>공동체의 숲</p> <p>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커뮤니티 도시숲</p>
--	---	--	--	---



금융·관광분야 특성화고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교장 권영훈, 단원구 석수로 131(선부2동))는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목표로 매주 존중과 나눔, 배려를 주제로 채플을 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또한 꿈을 갖고 공부하는 행복한 학교, 인성을 키우는 정다운 학교를 꿈꾸고 있다.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는 금융, 관광분야 특성화고로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체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 관광, 금융, 회계 분야에서 일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에 주목해보자.

관광운항과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감각을 갖추고 실무 능력을 겸비한 관광, 호텔, 항공과 운송 관련 서비스 전문 인력과 투철

한 서비스 마인드를 지닌 관광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한다. 취업분야는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과 지상직 직원, KTX 승무원, 크루즈 승무원, 호텔 숙박업, 여행사, 면세점, 관광관련업체, 서비스 교육업체와 이미지 컨설팅 업체 등이다.

관광레저과

국가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며 특히 주5일제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산업의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중 레저산업과 관련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여 해당 산업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목표로,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관광레저 부문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한다. 취업분야는 이벤트기획사, 이벤트업체, 국제회의 전문업체(PCO), 호텔 및 관광숙박업, 여행사,

테마파크, 외식산업체, 스포츠 레저 이벤트 업체, 골프, 승마, 요트, 관광 관련 업체 등이다.

금융정보과

금융산업의 급격한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국제화에 대응하고 은행, 증권, 보험관련 금융정보의 금융실무자로서 지녀야 할 기초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금융서비스분야에 종사할 전문적인 금융인재를 양성·배출한다. 취업분야는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예금보험회사 등 금융 관련 공기업, 공무원, 증권회사, 카드회사, 부동산개발 및 금융 컨설팅회사 등이다.

재무관리과

경영정보기술에 기초한 경영과 판매관리 등에 대한 제반이론과 실기, 유통시스템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균형적 감각과 시스템적 사고를 가진 폭넓은 교양을 갖춘 유통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한다. 취업분야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기업물류센터, 택배사업, 각종판매사원, 보험중개인, 제조·유통업체, 대기업·중소기업체 유통부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무역협회, 해운·항공회사, 전국유통단지, 전국물류센터, 유통관련자영업, 금융기관, 증권·보험회사 등이 있다.

세무회계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필수요소인 세무, 회계와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세무행정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세무행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한다. 취업분야는 공무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기업 회계실

무담당자, 중소기업회계실무 책임자, 금융기관, 증권회사, 펀드매니저, 파생상품관리자, 외환딜러, 변액보험관리자,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연구보조직 등이 있다.



관광운항과

학교 관계자는 “경일관광경영고는 중소기업 지정 특성화고다. 특성화고 지원비는 모두 교육비로 쓰인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의 예절 매너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의 결과 학생들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자기 전공 외 각각의 전공을 크로스하도록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국제 교류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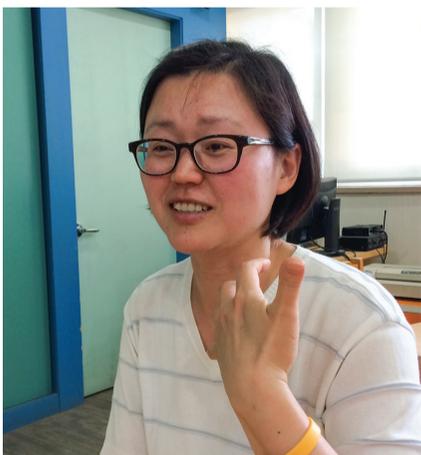
특성화고 전교생에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경일관광경영고는 단국대, 상명대, 가천대 등 서울권 4년제 대학과 MOU 체결로 취업과 동시에 진학이 가능하다.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하면 자가 정원 외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외국대학 진학과 취업 기회를 취득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 031-363-1400)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일상적인 독서교육,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어”

석호초등학교 샘골도서관 이미경 사서 이야기



15년간 샘골도서관 사서로 근무, 어머니 사서 모임 결성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석호초등학교 샘골도서관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아이들은 누워서 책을 읽다가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동아리방에 들르듯 편하게 와서 아이

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사서로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분위기다. 샘골도서관에서 15년을 근무한 이미경 사서는 때론 귀찮을 법도 한데 학부모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하려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본인은 자신의 성격이 원칙 중심적이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 원칙이 아이들의 기쁨을 향하면 달라진다.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학교안의 작은 오아시스를 지키는 이미경 사서를 만났다.

석호초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도서관 이용하시는 한 어머니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머니 사서모임을 결성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공모사업도 선정돼 염색, 곤충생태 체험, 독서교실도 열고, 인형극도 준비했다. 처음 인형극 준비할 때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 받았다. 그 후 주1회 책읽어주기, 책 축제, 인형극상영, 독서교실 등 어머니 사서모임

활동들이 체계화됐는데, 어머님들과 일하면서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생각하게 된다.

학교도서관에서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전에 어린이 사서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행사를 기획했다. 음식도 만들어 먹고, 영화도 보고, 화장실에 무서운 그림 붙여놓고 손전등 하나 들고 학교 돌아보는 미션수행도 했다. 학교에서 하루 밤을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안전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3,4년 전부터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다.

사서로 근무하며 힘들었을 때는?

가끔 도서관에 분노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온다. 하루는 한 아이가 심하게 욕하고 자해를 해서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다. 점점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심리적인 대처가 어려워진다.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으며 공통된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중이다.

학교 도서관에 바라게 되는 점?

대출반납 통계상으로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10~16% 정도 된다. 도서관을 안 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그게 숙제다. 2001년부터 아이들에게 도서관 이용교육도 따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매우 크다. 책을 권하는 교사를 만나면 아이들이 일상적인 독서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 한 선생님이 6학년 담임을 맡으셨을 때 그 반의 대출권수가 천 권이 넘었다. 그 반 아이들끼리 서로 ‘이거 재미있냐?’고 물어보면서 책을 권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학교 선생님들과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또, 독서교육은 책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느낀 생각들을 스스로 말하고 적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한 학교에 20~30개 정도, 조그마한 책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책 읽는 즐거움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카메라 돌려메고 사진 찍으러 갈까요? 사진 동아리 '카.돌.고'



8월 24일~8월 30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두 번째 전시 열어

“사진은 찍어야 할 대상을 발견하여 정지된 순간을 보여주지요. 쉽 없이 움직이는 이 산만한 세상을 각자의 시선으로 프레임 안에 다소곳이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카.돌.고(카메라 돌려메고) 동아리 이동진 회장의 말이다. 대상을 발견해 정지된 순간을 각자의 시선으로 프레임 안에 담는 작업.

카.돌.고 사진 동아리는 안산시평생학습관 DSLR 사진강좌 수강 중 좀 더 깊이 있고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다.

지난해 3월 카.돌.고 사진동아리는 창립 당시 회원은 10명이었으나 지금은 21명이 활동하고 있다. 카.돌.고는 회원의 단결을 통한 친목과 권익을 목적으로 하며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동아리회원의 사진기술 향상과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께 어울려 학습하고 활동하며, 각자의 시선과 감성을 담은, 작품성 있는 학습 결과물을 모아 사진 전시회를 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회원개인의 실력향상과 만족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음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동아리활동은 매주 화요일 오후 안산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에서 모인다. 카메라 기술과 정보를 나누고 한주간 올려진 사진을 보며 서로의 느낌을 토론하고 정보를 나눈다. 매월 정기출사를 진행하고, 연 1회 회원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 번개출사, 사진전 관람, 견학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카.돌.고 동아리는 올해 제2회 카.돌.고 사진전을 연다.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열린다. 이

번 전시는 디지털카메라의 기술향상을 바탕으로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시하여 자연과 일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보여줄 것이다. 카.돌.고 동아리는 그동안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평생학습관 한마당 축제 사진봉사와 사동 벚꽃 축제 등 지역행사 참여, 안산거리극 축제 사진 봉사 도우미 활동 등을 펼쳤다. 2014~2015 우수동아리육성지원사업 선정되었고, 경기도 주최 고려인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사진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상록구청에서 제1회 사진전을 열었다.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일본에서 온 게이코 씨의 안산살이 “가깝고도 먼 일본은 이웃나라입니다”



게이코 씨(53세)는 1995년에 남편 곽종성 씨와(60세) 결혼을 하고 1996년 2월 14일에 한국에 입국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천막 가게를 크게 하고 있

었고, 지금은 회사에 다닌다. 슬하에 자녀는 셋이다. 게이코 씨는 아이가 셋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힘들겠어요.”라고 반응하는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2~3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기본이다. 큰아이가 고3이 된 요즘에서야 그 반응이 교육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교육에 대해 남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중압감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내 아

이에게 부족한 과목만 학원에 보내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공교육 이외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2~3과목 이상을 학원에서 배운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어순이 같고 한자로 된 단어가 많아 습득이 어렵지 않았다. 특히 가족드라마를 즐겨보면서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며느리의 역할 등 한국문화에 대해 배웠다. 한때 ‘은사마(배용준)’를 좋아했던 게이코는 사무라이 정신이 투철한 일본 남자들과 다르게 상냥하고 감성적인 배우에게 끌렸고, 한국 남편과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인은 전체의 조화를 위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미덕으로 여긴다. 또한 작은 구멍가게라도 천직으로 여겨 가업을 잇는다. 이는 직업을 자주 바꾸는 것이 신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진과 태풍에도 묵묵히 견디

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게이코 씨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공개수업에 참여한 뒤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 한 줄로 끝나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을 한국에서는 너무도 자세히 배우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지폐의 모델일 정도로 훌륭한 일본의 위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중근과 33인의 독립투사가 위인이다. 일본에서 8월 15일은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날인데, 한국에서는 광복절이다. 아이들은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엄마의 나라를 싫어했다. 속상했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일본 정부와 한국은 서로 입장이 다르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아이들은 혼란스러웠고, 일본인이 자 엄마로서 과거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때 게이코 씨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다문화 강사 과정을 밟고, 세계 200여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문화를 알리는 강사로 활동했다. 안산시 다문화홍보학습관 개관 당시 200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로 된 기모노를 사서 기증하기도 했다.

함께했던 ‘문화세상 고리’의 강사들도 자국의 의상, 악기, 화폐 등을 자국에서 구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일본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은 차츰 엄마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게이코 씨는 ‘사쿠라’팀의 일원으로 2008년 세계인의 날 행사 때 일본 전통춤을 공연해 금상을 받기도 했다. 상금은 개인이 받지 않고 팀을 꾸리는 데 사용한다.

“내 고장 안산에 다문화인들이 화합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 자리 잡은 우리들이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리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요.”라며 다문화체험 캠프를 위해 기모노를 입었다.

건강한 그녀의 웃음 탓이었을까. 기모노를 입은 게이코가 한복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대부도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해상수난구조대'

국민안전처 제13호 방아머리 구봉도지역대



섬에서 낚시를 하거나 조개잡이를 하던 이들도 순식간에 물에 갇혀버리기 일쑤다. 간조와 만조에 맞춰 시속 80km의 구조선으로 순찰을 하며 구봉도의 낙조전망대를 지나 영흥도와 선재도 인근의 바다를 순찰한다.

김천식 단장은 "선재대교에서 낚시꾼 사고가 많아요. 간조 때는 구조선이 직접 들어가 지 못해 영흥대교를 지나 선재도로 들어갑니다."라며 "월 회비 2만 원으로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사비로 2천만 원짜리 구조선과 천만 원이 넘는 제트 스키를 장만했어요. 우리는 서해페리호, 천안함, 태안, 세월호 등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모두 참여해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봉사한 대원들은 공평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젊은 봉사자가 없어 걱정입니다. 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구조연합회 안산지역대장이자 스쿠버연맹 인명구조 강사인 김 단장은 국민안전처 중앙안전민간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12년에 해상수난구조대를 국민안전처에 등록, 이들의 활동범위를 영흥도까지 확대했다.

가족과 함께 1년에 6~7번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캠핑을 한 지 10년쯤 되었다는 김채은 학생(고1, 부천)은 "계절마다 풍경이 좋고, 비용이 들지 않아 자주 다녔는데, 구조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점심때 삼겹살을 구워먹었는데,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화장실도 깨끗이 사용해야겠어요. 이런 작은 행동이 봉사자들에 대한 보답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문의 : 해상수난구조대 방아머리 구봉도지역대 (☎ 032-883-211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여름휴가의 절정인 8월 1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에는 150여 개의 텐트를 친 야영객을 포함해 500여 명의 피서객들이 5km의 해안가를 가득 채웠다.

오전 11시, 텐트촌 한편의 방아머리 구봉도지역 해상수난구조대 사무실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됐다.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간이다. 심 정지 후 심장이 멎은 후 5분 정도까지는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안산소방서 대부119안전센터 이창세 소방사는 "대부도에는 연간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대부도 인구만 해도 7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도 관할에 구급처

가 한 곳뿐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남동에서 대부방아머리 해안까지 오가는 데 15분이 걸립니다. 해수욕장에서 구조대를 결성해 봉사를 해주니 마음이 놓입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부관광안내소 뒤편에서 시작해 해안선과 도로가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는 해수욕장은 썰물 때는 넓은 갯벌과 이어지며 낙조까지 곁들여지는 날에는 환상적인 풍경을 이룬다.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사계절 경치가 좋아 주말이면 낚시와 물놀이 등 이용객이 북적인다. 대부도 해안에서 1년 평균 20~30건의 인명구조가 발생한다.

1992년 탤런트 정동남 씨가 (사)한국구조

연합회를 창설한 이후 98년~2000년에는 웅진군, 태안, 서산, 안산, 탄도에 해상수난구조대를 두고 구조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안산에서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30명 정도다.

2012년부터 평택해양경찰서는 방아머리항에 안산해경센터를 두고 해경이 2인 1조로 48시간씩 방아머리 해안을 순찰하고 있다.

해상수난구조대는 이들과 함께 해변과 해상을 넘나들며 피서객들의 안전을 지킨다. 오후 4시가 되자 밀물이 들이닥치는 줄도 모르고 위험 경계지역에 있던 피서객에게 한 대원이 에어 혼을 불며 위험을 알린다. 이어 제트 스키를 탄 해경과 구조대원이 다가가 이들을 위험지역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우리 집은 태양광 발전소, 베란다에 모듈 설치해 전기 생산'

전기요금도 아끼고 에너지 절약에도 동참



김기영(74세 · 고잔동 보네르빌리지) 어르신은 2년 전, 거주중인 아파트가 에너지절약 시범 단지로 선정됐을 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에도 동참하고 전기요금도 아낄 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가로 120cm 세로 50cm 크기의 50W 모듈 5장을 설치

하는데 시 지원금 40만 원을 제하고 비용으로 30여만 원을 자부담했다. 여기서는 김치냉장고 한 대를 가동할 수 있는 월 평균 25kW 전력이 생산된다. 많은 발전량은 아니지만 어르신 맥의 전기요금도 모듈 설치 이후 월 1만5천 원 정도 줄었다.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이 많이 나오는 누진제여서 가능하다. 김기영 어르신은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얻은 좋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실시간 인버터에 표시되는 발전량을 보면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는 뽑게 되고, 방에서 나갈 때면 꼭 불을 끄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생산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또 다른 수확이라고 했다.

안산시는 태양광발전을 통한 지속가능 에너지자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주택과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설치비용 40만 원으로 연간 10만~30만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전량 수입하는 기쁨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시설이다. 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167가구 설치를 시작으로 2014년 300가구에 이어 올해도 30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란의 '태양광발전기 보급' 코너

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원보건소 3층에 위치한 안산시 녹색에너지과에서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주택의 위치 방향에 따른 제약으로 신청자격은 남향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로 제한된다. 250W 또는 300W 이하 발전기를 아파트 · 연립 주택은 베란다 난간 거치형으로,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은 건물 옥상에 앵커 볼트형으로 설치 한다. 37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설치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한다.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가 가능한 3kW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금 252만 원 외에도 시 지원금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본인 부담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다. 2014년도에는 57가구가 신청, 월 평균 300kW 전력을 생산해 연간 85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줄이고 있다. 올해는 목표 120가구 중 7월말 기준 84가구가 지원해 40가구는 설치 완료했고 44가구는 진행 중이다. 현재 36가구에 해당하는 시 지원금이 남아있다.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 031-481-281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책과 음악, 나눔이 있는 문화카페

와동 작은도서관 '책 읽는 방' 개관



단원구 와동 한적한 주택가에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반가운 이웃과 담소도 가능한 문화 공간이 마련됐다.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38-1, 1층 67.2㎡ 공간에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 중·장년층 부모세대가 다함께 누리는 '작은도서관 책 읽는 방'이 지난 8월 11일 문을 열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 1,500권과 LP판, CD 300종을 갖춘 도서·음반 코너와 단원보건소 이음카페에서 운영하는 커피·주스 바 등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카페풍의 외양을 갖춘 도서관 앞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안 보는 책이나 물품 등을 나누는 중고물품 교환 장터와 작은 음악회, 독서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 쓰이게 된다.

작은도서관은 안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와서 책을 읽다가 집으로 빌려갈 수 있는 장외대출이 가능하다. 한 사람당 7권의 책을 14일간 대출해 준다. 안산의 28개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가 연결되어 이곳의 1,500권 도서 외에도 중앙도서관의 28만 권에 달하는 장서와 안산시 전역의 지식창고까지 이용 가능한 셈이다. 신간도서도 제공된다. 또 인기 있는 책은 예약서비스를 이용해 빌려볼 수 있다. 이외에도 주민들끼리 안보는 책을 돌려볼 수 있는 중고도서 프리마켓도 주기적으로 운영된다. 김미정 안산시 도서관정책계장은 "와동 작은도서관 책 읽는 방은 규모는 작지만 안산 중앙도서관을 배후에 둔 문화

공간으로서 청소년·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문화프로그램과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취미별 동호회의 모임도 가질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간으로 와동지역의 문화오아시스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곳 작은도서관에서는 책 향기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주스, 그윽한 커피 향기도 맡을 수 있다. 책을 보면서 간단한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단원보건소 이음카페가 와동점으로 함께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지적장애인들 4명이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하면서 갓 볶은 신선한 원두를 그 자리에서 갈아, 검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내려

준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천 원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스팀으로 데운 우유의 고소한 맛이 더해진 커피라떼, 풍부한 거품의 카푸치노와 제철 과일을 갈아주는 생과일 주스도 2천 원이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직업재활 훈련을 통해 비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음을 무리 없이 보여준다.

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개방된다. 월요일과 국경공휴일은 쉰다. 9월 3일에 정식 개관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식중독 없는 여름, '장염 비브리오' 주의하세요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 등의 조리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연간 발생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86%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

증상

-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40시간 내(통상 10시간 이상) 발병
- 구토, 복부 경련, 미열,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주로 물 설사이며 때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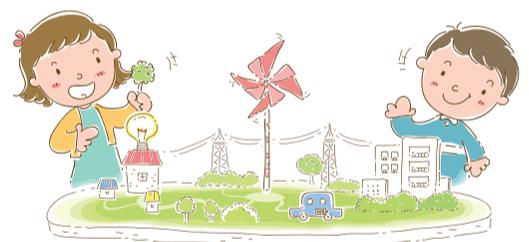
예방요령

- 신선한 어패류 구매, 신속한 냉장보관(5℃ 이하), 될 수 있으면 당일 소비
- 조리 전·후 올바른 손 씻기

- 반드시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어패류를 절단·조리 전에 흐르는 수돗물로 표면을 깨끗이 세척
- 칼·도마는 전처리용과 헹감용을 구분하여 사용
-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하여 2차 오염 방지
- 여름철 어패류 섭취 시 가능한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
-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구분 보관
- 수족관 물은 자주 교체하고 내·외부 청결하게 유지
- 무채·천사채 등은 한 번만 사용하기
- 문의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 031-481-6240

독/자/투/고

녹색생활 실천, 안산시가 앞장서요



며칠 전 사2동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에서는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인적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피크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고, 냉방온도도 26℃ 이상으로 제한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 등 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방안을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에너지절약 부채도 나눠주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얻음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함께 나눠갔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블랙아웃(Black out, 대정전)이라는 말 웬만하면 다들 알 것이다. 한여름에 전기 사용량이 폭주해서 일시적으로 전기가 끊기는 현상인데 요즘같은 불볕더위에는 정말 블랙아웃이 걱정된다. 그래서인지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도 공무원들과 공직사

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 사례를 자주 보는데 공직사회의 이런 노력에 발맞춰 시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도 다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며칠 전 모 공공기관에 갔을 때 일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 맨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날은 모두 다 넥타이 없이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아하, 바로 저거야. 말로만 들던 쿨비즈라는 거"

순간적으로 느껴졌다. 녹색생활 실천 안산시!

쿨비즈(Coolbiz)란 여름철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2~3도씩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을 줄일 수 있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넥타이를 풀고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시청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로 실천하는 모습 역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전기절약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게 하는 방법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필자도 집에서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나는 우선 세수한 물로 발을 씻고,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넣어 물 1ℓ씩 덜 받는다. 또한 스티로폼 조각을 원판으로 오려 중심에 온도계를 끼운 뒤 욕조에 띄운 수온계라는 것을 고안해 목욕물을 알뜰하게 받아 쓴다.

그리고 우리집은 '귀신'이 사는 집이 됐다. 우리는 집안에서 웬만한 일로는 불을 잘 켜지 않는다. 어느날엔가는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눈을 비비고 주방으로 나오는데, 검은 형상이 주방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깜짝 놀랐으나, 알고보니 물 마시러 나온 아내였다. 아내와 서로 한바탕 웃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화장실 변기 위

에 누군가가 걸터앉아 있어 "아악!" 비명을 지른적도 있다. 처음엔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던 가족들도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졌다. 삶속에서 절약정신을 실천하시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어느 날 보니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가 돌아다닐 때마다 현관의 센서등이 켜지는 것이 눈에 들어와 즉시 센서등을 껐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에너지 절약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의 이러한 조그만 절약정신이 에너지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간다면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구하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안산시 파이팅이다!

권혁조 (상록구 사동)

생활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Photo in A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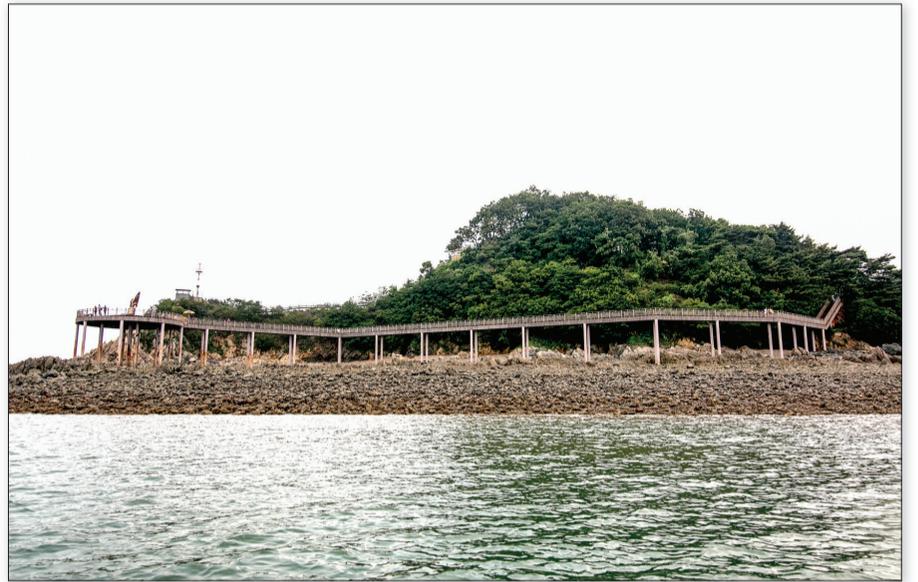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안산

대부해솔길 - 구봉도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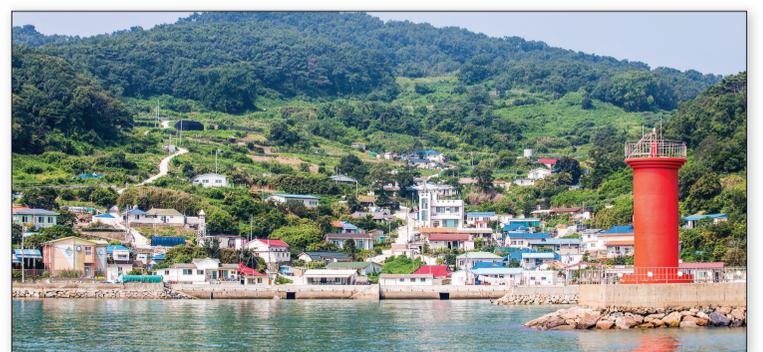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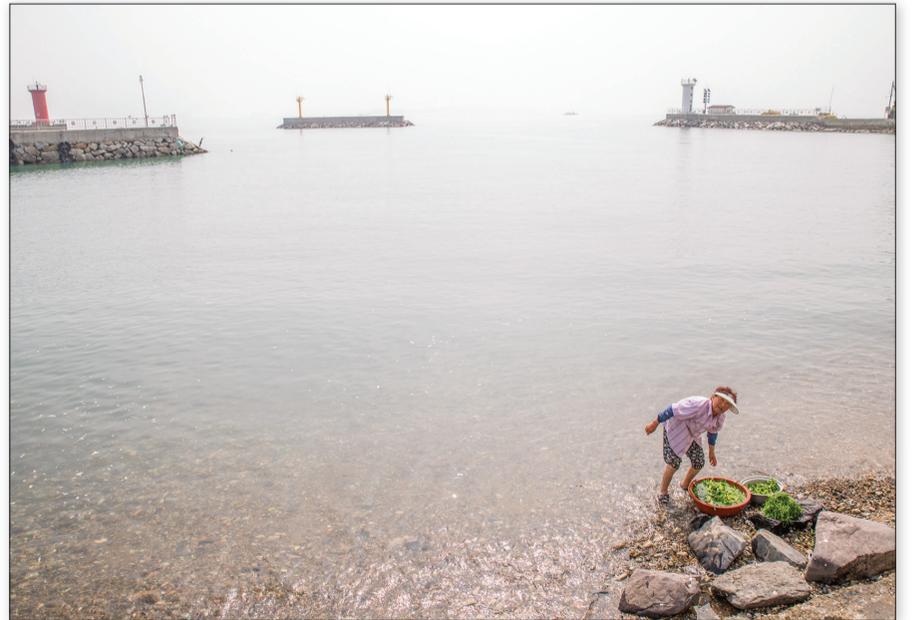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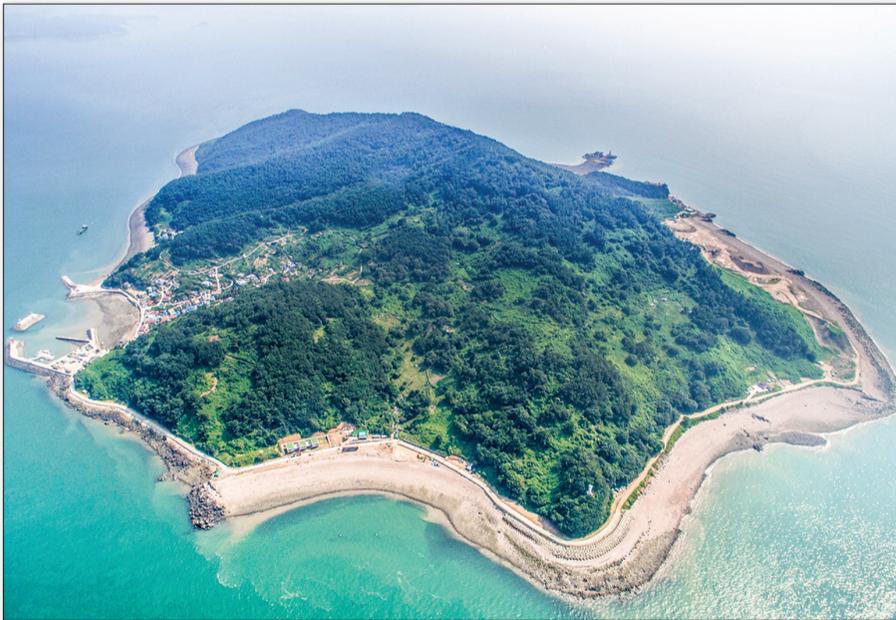
풍도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대부해솔길 - 구봉도

• 위치 단원구 대부북동 • 한줄 정보 대부도 해안선을 따라 서해의 자연 경관을 만끽하는 대부해솔길 첫 코스에 위치한다. 개미허리 다리와 낙조전망대가 유명하다.



풍도

• 위치 단원구 풍도동 (대부도에서 서남쪽 24km 지점) • 한줄 정보 다양한 야생화 자생지로 유명해 개화 시기가 되면 풍도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안전한 사회만들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하며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사고를 예방, 사건사고를 경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만화를 게재한다.

자료제공 :  **국민안전처**

오늘은 생일파티가 있는 날
스프레이와 폭죽 때문에 가스 폭발이?



SOS
체너퀸 수호대

오늘은 백수의 생일

강백수! 그만 와 있지?

생일 자 오라!

근데 왜 백수 생일잔치를 박사네서 하는데?

백수네 짐통인 거 모르냐.

와우~ 시원하다! 역시 박사네가 최고야!

시원해...

우익!

아아아악!

폭죽은 안 돼...

음식 배달 왔...?

시원!

헉!

바빠! 누구세요?

너, 제정신이야?

백수!

영영영

내 스토커야. 단단히 혼냈으니 다신 안 그럴 거야.

귀신 씨,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 있었어요?

그치만...

저 여자 대체 누구냐?

저렇게 예쁜 스토커라니!

자자~ 폭죽부터 터뜨려볼까?

안 돼!

왕박사 금방 올 텐데?

초에 불 붙여라.

와! 바쁘네.

일단 시작하지 뭐.

아압

에잇

이압

타!

우익!

아아아악!

어이! 별레 모기! 싫어 싫어!

아아아악!

헉!

바빠! 누구세요?

너, 제정신이야?

백수!

영영영

내 스토커야. 단단히 혼냈으니 다신 안 그럴 거야.

귀신 씨,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 있었어요?

그치만...

저 여자 대체 누구냐?

저렇게 예쁜 스토커라니!

아아아악!

뭐야!

아파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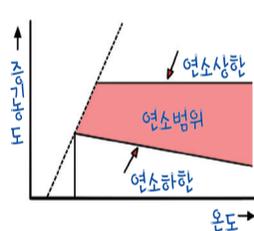
너 스프레이 뿌렸지? 문도 안 열어놓고!

그게 뭐 어대서?

왕박사의 한마디

가스가 얼마나 차야 불이 붙을까?

가스가 폭발하려면 일정한 농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처럼 가연성을 지닌 가스가 공기와 만나 연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정한 농도 범위를 연소한계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살충제의 경우에도 밀폐된 방 안에서 가득차면 연소한계를 넘겨,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연소상한

연소하한

온도

주방도 위험해.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도 자주 일어나거든.

그래서 내가 요리를 안 하는 거야. 위험 방지 차원에서.

갈내면어.

가스가 누출됐다면?

- 즉시 연소기 코크와 용기의 밸브, 중간밸브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 LPG가스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으므로 빗자루나 방석으로 바닥에 남은 가스를 쓸어냅니다.
- 선풍기 등 전자제품이나 라이터를 절대 켜지 말고, 쇠붙이를 부딪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프레이에 가스 들어 있는 거 몰라? 누가 담뱃불을 붙이거나, 전자제품 스위치만 켜도 폭발할 수 있다고.

어빙

우익!

우익!

왕박사의 한마디

연소의 3가지 조건

연소란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를 만나 열과 빛을 내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랍니다.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

가장 대표적인 부탄가스의 경우 연소한계가 1.8~8.4%야.

전체 공기를 100%로 봤을 때, 가스가 2%만 되도 불이 붙는다는 거네?

밀폐된 방 안에서 헤어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뿌리는 것도 위험해. 거기다 가스가 들었으니까.

그런 뒤에 가스판매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해 안전조치를 받아야겠지?

자, 이 정도만 하고 맛나게 먹자.

생중!

백수! 백수!

그나저나 강백수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남친 있으세요?

얼마나 뿌렸다고 불이 나?

그럼 폭죽이 점화원이 되는 거네?

맞아!

적은 양의 스프레이도 가스폭발의 원인이라고! 연소한계를 넘기면!

연소한계?

담뱃불이라도 붙었다가는 끝장이지.

그래서 스프레이 통 버릴 때 가스를 다 빼고 버리라는 거구나?

그렇지.

저는 이미 백수 씨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주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거야!

이 쓰레기 같은놈야. 스토커는 무슨 복덕진 봄!

• 주의: 담배는 인체에 해롭습니다.

여성비전센터

2015년 하반기 단기(특별)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인원 : 29개 과정 725명
- 교육기간 : 2015. 9. 7 부터 1일차~16주
- 모집기간
 - 우선모집 : 2015. 8. 24 (월) 09:00 ~ 8. 25 (화) 18:00 방문선착순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 일반모집 : 2015. 8. 26 (수) 10:00 ~ 8. 28 (금) 18:00
- 요리과목 : 8. 26 (수) 10:00부터 인터넷 선착순
- 그외과목 : 8. 26 (수) 11:00부터 인터넷 선착순
 - 추가모집 : 2015. 8. 31 (월) 09:00 ~ 18:00 미달과목 인터넷선착순
- 모집과목
 - 특별과정 : 여성 노후설계 아카데미, 가족 베이커리, 가족 건강마사지 등
 - 요리과정 : 양식조리기능사, 카페브런치, 전통발효음식, 떡 한과 등
 - 그외과목 : 네일아트, 조정기능사, 수납전문가, 부동산경공매 등
- 문의처 :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wm.iansan.net / ☎ 481-2761~5)

전화금융사기 조심하세요!

- 보이스피싱
 - 자녀 납치 빙자, 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해 계좌 이체를 유도하거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여 자금을 이체
- 대출사기
 - OO금융·OO캐피탈 등을 사칭한 전화를 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보증보험료·신용등급 조정비·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
- 대포통장
 - 아르바이트·부업등 취업 또는 대출·금전 대가 미기로 통장·카드 요구
- 대응방법
 - 전화로 개인정보 또는 간편 대출 명목으로 수수료나 통장·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므로 끊어버림
 - 피해 발생 즉시 국번 없이 경찰 112·금융감독원 1333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로 신고하여 지급정지 요청

※ 문의 :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지능팀) 031-8040-0369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제2회 안산 World Peace 자전거 대축전

안산시 호수공원 중앙무대
2015년 9월 13일(일) 10:00 (9시 집결)

- 행사명 : 제2회 안산 World Peace 자전거 대축전
- 일시 : 2015년 9월 13일(일) 10:00 (9시 집결)
- 장소 : 안산시 호수공원 중앙무대
- 부품 : 비경쟁 패러디 부원상급자, 초급자로 구분 선착순 1,500명 마감
- 주최 : 경인일보 안산시생활체육회
- 주관 : 경인일보 국민생활체육안산시자전거연합회
- 후원 :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시장애인부모연대
- 참가비 : 5,000원
- 기념품 : 참가자 전원증정 기념품 자전거 헬멧



경품행사(배번호 경품행사)
참가자 배번호를 통한 경품행사 TV, 세탁기, 생활자전거 등 푸짐함 경품 행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행사문의 1600-3962 www.ansanbike.co.kr NAVER 안산자전거



2015년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에너지의 날!
안산시민 모두가 10분 동안 사람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소등행사 **시민이 에너지다!!** 우리는 8월 20일(목) 저녁 9시부터 10분 동안 소등합니다.

에너지의 날 기념 소등행사

2015. 8. 20(목) PM 6:30~9:30
안산문화광장

하나 에너지의 날 기념 여는 공연
- 호수동 리틀방송새조시범단
- 호수동 벨리댄스팀

둘! 에너지의 날 기념 연극그 음악회
- 안산YMCA 청소년연합회 에너지 플래쉬룸
- 안산시립합창단

셋 에너지의 날 기념식 소등행사

우리마을 소등축제

2015. 8. 20(목) PM 6:30~9:30
각 참여 아파트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본오2동, 본오3동, 사1동, 사2동, 사3동, 선부2동, 선부3동, 성포동, 신길동, 이동, 초지동, 호수동

하나! 각 아파트별 사전홍보
둘! 각 아파트별 주민프로그램
셋 소등행사 청소년 봉사활동
넷 전채소등 및 암흑체험

Save at 2PM! 캠페인

전기사용 피크타임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에어컨 끄기에 참여해주세요!

주최 : 안산시 에너지시민연대 경기에너지시민연대 주관 :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 호수동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 사2동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
 참가기관 : 안산시의회, 호수동주민센터, 사2동주민센터,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 안산YM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불부리환경센터, 안산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안산시부안산의제, 안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참여 APT : 참여 APT 12개동 47개아파트 43,446세대
 (본오2동) 신안단지아파트 (본오3동) 우성아파트, 본오주공아파트, 태영아파트, 신안2차아파트, 월드아파트 (사1동) 푸른마을5단지 (사2동) 본오1차, 본오2차, 상록수요진아파트, 상록수터운빌드, 선경아파트, 신우아파트, 예누림아파트, 현대1차, 현대2차 (사3동) 고진6차푸르지오, 고진7차푸르지오, 고진9차푸르지오, 상록마을삼보아파트 (선부2동) 선부휴먼빌아파트 (선부3동) 공작한양아파트 (성포동) 선경아파트, 성포주공 10단지, 성포주공11단지, 현대차 (신길동) 휴먼시아2단지, 휴먼시아3단지, 휴먼시아15단지, 휴먼시아16단지, 휴먼시아19단지 (이동) 고진그린빌10단지 (초지동) 그린빌4단지, 그린빌 18단지, 호수마을풍림아파트 (호수동) 그린빌7단지, 그린빌8단지, 그린빌9단지, 네오빌6단지, 단원마을, 보네르빌리지, 양지마을, 푸르지오3차, 푸르지오4차, 푸르지오5차, 호수공원